

1월 10일 토요일 법회 식순

-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의 영상 - "한국의 발전상(의료)" (금강경독송회)
-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나의 신행 이야기
  - 법 사 : 권영순(정각원 신도합창단)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17(토)	승만경 1	해주스님 (동국대 불교대학교수)
1.24(토)	승만경 2	
1.31(토)	승만경 3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캠프  
화! 어찌란 말이나!



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후회하고,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 기 간 : 2015. 1.30 ~ 2.1(2박3일)
  -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공주) ☎ 041)841-5050
  - 강·법사 : 마가스님, 문진건(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 참 가 비 : 50만원
- 문의 ☎ 자비명상 02)3666-0260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인 등 : 1년 오만원
- 신청문의 : 정각원 사무실 ☎ 2260-3017

\* 토요일 법회 시 축원 해드립니다.^^

신도회 소식

<불기 2559 정각원신도회 운영진 모집>

정각원 신도회에서 함께 봉사해주실 신도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가피속에 함께 봉사해요~

- 분야 : 부회장(단), 재무·봉사·포교·교육(부장), 운영위원
- 방식 : 자원 혹은 추천
- 기간 : 2015. 1월 까지

문의 ☎ 신도회총무(법원)

정각원 새신도

김수연, 김순희, 김은하, 김정현, 문진건, 박영춘, 박은영, 방주현, 손승표, 송영숙, 신아영, 이경숙, 이은희, 이의수, 이재원, 이정숙, 임승혁, 임현미, 전순애, 최순복, 최유섭, 함정연, 황명숙

(11월~12월 가나다순)

행복도량 정각원 불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O

보시동참

1월 5일 불전 공양

₩ 1,474,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은희, 강춘애, 고목훈, 곽원기, 권복숙, 권혁채, 김종관, 김희년, 남창강, 박성진, 백광호, 신용수, 신지원, 안대준, 원서준, 윤호문, 이민기, 이봉자, 이수준, 이용진, 이인주, 이형식, 정도원륜, 정병국, 정찬혜,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한상훈,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657,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명진스님, 김원규, 최광자

공양 보시

- ◆ 불 단 떡/과일 : 정각원 신도회
- ◆ 대중공양 : 임보선(이가영, 임병렬 생일축원)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금일 신년맞이 영화 관람(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을  
신청하신 신도님께서는  
15:50까지 대한극장 1관(지하 1층)으로 오세요~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강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월 10일

제275호(週刊)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처요, 누가 자신의 의지처가 되리오.  
자신을 잘 다스려야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으리라.

[법구경]

## [ 불기2559년 乙未年 신년예불 및 시무식 봉행 ]



◎ 1월 5일(월), 이사장 정련큰스님과 김희옥 총장님, 원장스님, 부총장님, 교무위원 등 동국 구성원 300여명이 개교 109돌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 예불 및 신년하례 시무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원장스님께서서는 법당에서 '신년 축원문'을 봉독하시며 동국가족 모두의 발전과, Re-start 2년째를 맞은 동국의 힘찬 도약을 축원해 주셨습니다. 불자님들도 청양의 해를 맞아 부처님 가피속에서 신심가득 애종심을 발현하는 한 해되시길 기원합니다. \_(\_)\_

## < 김원수 법사님 직강 금강경 강좌개설 >



### “생활 속의 금강경” 특강안내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생활 속의 금강경」 특강을 시작합니다.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의 진수를 배워요~^^



□ 일 시 : 매주 월요일 17:30~

\*개강 : 금일 2559. 1. 5(월)

□ 장 소 : 만해관 163호

□ 법 사 : 김원수 법사님  
(사북) 바른법연구원 대표이사

□ 수강료 : 자율 보시

◎ 5일(월) 명상실에서 60여명의 신도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원수 법사님의 “생활 속의 금강경” 첫 강의가 있었습니다. 정각원에서 '금강경'의 진수를 공부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뜻 깊은 한해 출발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만해관 163호에서 강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

---

# 엄마로 산다는 것

권영순(평생교육원 한지공예 교수,  
정각원 신도 합창단)

## 1. 불교의 자비(慈悲)와 효(孝)

관무량수경, 불설사천왕경, 효자보은경 등 불교의 경전에서는 수많은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 <범망경>(梵網經)에는 지극한 효심이야말로 대자대비(大慈大悲)하는 보살의 정신'이란 말이 있다.

'자비(慈悲)'는 불교 사상의 핵심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자(慈)는 특정의 인간이 아닌 모든 인간에 대한 최고의 우정을 갖는 것을 뜻하며, '비(悲)'는 고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비'는 타인과 함께 최고의 우정과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智觀經)>에서는 이러한 말을 부모의 은혜로 풀이하고 있다.

-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가 높아 태산과 같고,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가 깊어 바다 속 같다.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자은(慈恩)', 어머니의 은혜를 '비은(悲恩)'이라 한다.

## 2. 부모와 관련된 고사성어와 격언들

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 (신체발부수지부모불감훼상효지시야)

신체와 발부(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훼손(헐거나 다치는 것)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효경(孝經)

樹欲靜而風不止 (수욕정이풍부지) 子欲養而親不待 (자욕양이친부대)

往而不可追者年也 (왕이불가추자년야) 去而不見者親也 (거이불견자친야)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한시

椎牛而祭墓不如雞豚逮親存(추우이제묘불여계둔체친존)

소를 잡아 부모의 제사에 쓰는 것보다 생전에 돼지고기 닭고기로 봉양함이 훨씬 낫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알보지 않는다. -불경

부모를 왕위에 나아가게 한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 석가모니 부처님

내 한 몸은 곧 백 천만대의 선조가 전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감히 내 몸이 곧 나만의 소유라고 말하겠는가? - 장현광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지라,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못되느니라.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임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 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만다. -채근담

어린 자식들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대가 듣기에 늘 싫지 않고, 부모가 어쩌다 한번 입을 열면 참견이 많다 한다. 참견이 아니라 부모는 걱정이 되어 그러느니라. 흰 머리가 되도록 긴 세월이 아시는 것이 많으니라. 늙은이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들고, 젖내 나는 입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말라.

-명심보감

---

어린 자식의 오줌과 똥 같은 더러운 것도 그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늙은 아버지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뜻이 있다. 여섯 자나 되는 몸이 어디서 왔던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졌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아버지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 명심보감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써 봉양함을 효도라 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논 어

자식을 길러본 후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 왕양명

저울 한쪽에 세계를 실어놓고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실어놓는다면 세계가 훨씬 가벼울 것이다. - 랑구랄

### 3. 나의 어머니 이야기

청량사와 영주 부석사에서 1095일 동안 기도한 어머니, 100일된 여자아이와 세 아들을 둔 채 홀로된 어머니, 밀주단속에 걸리셨어도 정직과 당당함을 보여준 어머니, 팔죽이 끓고 있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며 맛있는 야단을 치시던 어머니, 신발장의 내 구두를 잃어버렸을 때에 용서와 사랑으로 그 구두를 가져간 사람을 이해하게 했던 어머니, 자식이 처음 만든 죽밥을 삶의 마지막 식사로 맛있게 드셨던 어머니, 여자의 다섯 가지 예절(숨씨, 맵씨, 말씨, 글씨, 마음씨)을 가르쳤던 현명한 어머니가 떠나고, 그리움과 후회의 시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한 아이를 눈물로 떠나보낸 후 나의 어머니를 닮아 용감하게 일어나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내 딸도 나의 어머니를 닮아가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

### 4. 나의 딸과 손녀가 연주하는 K-POP 스타4 이설아의 <엄마로 산다는 것>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획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